

2022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자료집

함께,
돌아보고,
마주하는 삶



차 마

2022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자료집
함께, 돌아보고, 마주하는 삶

2022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02

생활공동체 04

- 아차도 공동체 05

- 거북이마을 공동체 14

관심·취향공동체 22

- 우라通 실버극단 25

- 가좌노인문화센터 32

추진회의·결과공유회 38

참여자 리뷰 44



2022 노년문화예술포교육 사업



2022 노년문화예술교육 사업

올해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19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020년 노년 문화예술교육 조사·연구, 2021년 노년 문화예술교육 실행연구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노년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하여 참여노년의 공통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체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 내 확산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 지역 내 노년층 문화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인천형 노년 문화예술교육 모델 구축
- : 공동체 기반 참여 노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기초한 노년 문화예술교육 개발·운영 및 지역 내 협력·연계를 통한 확산
- 성과 공유를 통한 노년 문화예술교육 인식 공유 및 논의 확대

사업 내용

- 노년 문화예술교육 개발·운영
- 노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회의 운영
- 2022 노년 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공유회 개최

생활공동체

아차도 공동체

거북이마을 공동체



노년문화예술교육-생활 공동체 : 아차도 공동체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내똥네똥>
- 기간: 2022년 5월~10월
- 참여자: 아차도 주민 10명
- 장소: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리 마을 일대

아차도 공동체 특징

- 생계형 노동(어업, 농업, 공공근로) 중심의 생활양식, 친족 공동체
- 2012년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 아트,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이 많지만 자체적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
- 무인화되고 있는 섬으로 문화, 교육, 교통, 의료 등 각종 인프라 부족
- 예술을 매개로 한 자기표현과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경쟁적 노동과 친족 중심의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점진적·일시적 완화

프로젝트 목표

- 엄마, 할머니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개인으로서 '나'의 욕망 들여다보기
- 배제되거나 타자화된 노년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기
- 예술을 매개로 나와 타인을 억압하지 않는 공동체 형성
- 회차별로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되는 프로그램 형
농번기, 물때, 공공근로 등 아차도 주민의 생계와 연관된 노동 시간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프로젝트
- 참여 체험 중심 → 창작 작품 중심 → 공동체에 개입 기획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 변모
- 나로부터 시작하여 커뮤니티로 순환되는 학습자의 개별적 문제의식을 가시화하여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로서 역할 확장

프로젝트 의의

- 노년예술 공동체 형성: 노년 여성의 개별적 존재를 가시화하여 개인의 예술적 욕구 충족, 사회 소속감 향상, 사회적 개입 촉진
-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드러나는 과정 중심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서 개인의 변화와 성찰의 중요성 되짚기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맺기를 새롭게 바라보고 사유하기
- 공공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주변화된 노년공동체의 예술활동 지속 및 가시화

실행연구 프로그램 회차별 활동 내용

1회차 / OT (5월) 주민 10여명 참여

2021년 활동 리뷰 및 참여자 피드백 정리, 2022년 프로젝트 홍보 및 오리엔테이션

2회차 / 기획회의 (6월) 주민 10여명 참여

참여자 개인별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 기획하고 기획 의도 생각하기

3회차 / 차와 우리 (7월) 기획 | 이승희

노동으로 빠곡한 생활에서 여유 있게 차를 음미하며 일 외의 대화를 나눈다
일 이야기, 지금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 금지라는 규칙 하에 대화를 나눈다
각자의 기획을 실행하는 의미, 다른 사람들의 기획의도에 대해서 묻고 들어본다

4회차 / 시와 나 (7월) 기획 | 김혜경

작년부터 조금씩 쓰고 있는 자작시를 낭송하고 관심 있는 다른 참여자도 자작시를 써와서 낭송에 참여한다
낭송을 하지 않은 참여자들과 함께 감상한 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눈다

5회차 / 선창 노래방 (7월) 기획 | 김순환

탁 트인 바닷가에서 목청을 높여 고향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잔잔한 파도소리를 배경으로 속삭이는 듯한 노래부른다
남을 의식해서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의 노래를 부른다

6회차 / 몸으로 말하기 (7월) 기획 | 황미숙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드는 아차도 마을 주민들이 한 데 모여 유년시절로 돌아간 듯한 재미있는 게임을 진행한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몸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단어나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한다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순발력 있게 실행해보고 그 느낌을 나눈다

7회차 / 아차도 피트니스 (8월) 기획 | 여정숙, 송동순

노동에 지친 몸을 이완하고 불편해지거나 달라진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각자의 몸에 맞는 운동을 배운다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 사용법을 습득하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든다
내 몸을 관찰하고 쓰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여 운동한 느낌과 상태를 나눈다

8회차 / 상영회 프로그램 리뷰 (8월) 주민 10여명 참여

상영회 전에 아차도 피트니스에서 배운 밴드 운동을 하면서 몸풀기를 한다
본인과 이웃의 활동 모습이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이야기와 생각을 나눈다

9회차 / 개별 인터뷰 (8월) 주민 10여명 참여

기획자이자 참여자였던 주민들의 개별적 심층 인터뷰로 노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 느낀 점, 삶의 변화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10회차 / 현장 활동 마무리 (10월) 주민 10여명 참여

1인 기획, 인터뷰, 상영회를 마친 후의 주민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활동을 마무리 한다

<내뚝네뚝> : 아차도 활동사진



아차도 마을 풍경



차와 우리 기획: 이승희

시라고 느끼는 거보다 저 사람의 삶도 나와 같구나... 내가 칠십이 넘었는데도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들이 모여서 담소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간다, 약 드리러 간다.

오늘 마신 차가 참 새롭고 믹스 커피 같지 않고,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좀 내가 우아해 보였다. 그치? 이런 차를 한 번도 안 마셔봤으니까.

차 마시기를 한다고 해서 언제 한가하게 차를 마셔?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언제 한가하게 찻잔을 준비해 온다고! 내 생각엔 그랬어. 그런데 이게 실현이 됐어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이렇게 평화롭게. 아침 먹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2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20년이 뭐야 2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만날 마셔도 믹스 커피! 자주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 날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안 잊어버려. ("기록을 해!")
 오늘 큰 아들 생신이셔. 오늘 기록을 안 해도 안 잊어버려.

나는 너무 힘들었어. 앉아있는 것 자체도. 우리들도 엄마잖아. 엄마의 뜻을 우리가 엄마라 그걸 몰랐는데 엄마를 듣는 순간 나도 엄마니까, 나도 할머니고.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는가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야. 시라고 하면 시고, 일기라고 하면 일기인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시라고 보자고 들면 그 내용이 좋았어.

나는 오늘
귀가 호강했어

시와 나 기획: 김혜경



사진 <시와 나> 참여자 자작시

나는 우리 엄마다 송복자

나는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애그 힘들다
 여기도 저기도 아프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옆에 있으면 불안했다
 지금 내가 똑같이 한다
 일년 차이가 엄청 난다
 피부가 건조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는 그림으로 다
 떠오르는데 말이 안 나와서 더듬거린다
 어찌해야 좋을지 답이 없다

단비 여정숙

사람도 풀들도 축 쳐져 기운 없는 나날을 보낸 끝에
 단비 맛을 보며 생기를 찾은 우리의 마음
 풀들도 고개를 쳐들고 말한다
 이제 살겠네



선창 노래방 기획: 김순환

탁 트인 바닷가에서 목청을 높여 고향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잔잔한 파도소리를 배경으로 속삭이는 듯한 노래를 부른다
 남을 의식해서 멋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의 노래를 부른다





몸으로 말하기 기획: 황미숙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드는 아차도 마을 주민들이 한 데 모여 유년시절로 돌아간 듯한 재미있는 게임을 진행한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몸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단어나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한다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순발력 있게 실행해보고 그 느낌을 나눈다



아차도 피트니스 기획: 송동순, 여정숙

노동에 지친 몸을 이완하고 불편해지거나 달라진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각자의 몸에 맞는 운동을 배운다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 사용법을 습득하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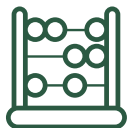
내 몸을 관찰하고 쓰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여 운동한 느낌과 상태를 나눈다





상영회, 리뷰

상영회 전에 아차도 피트니스에서 배운 밴드 운동을 하면서 몸풀기를 한다
본인과 이웃의 활동 모습이 편집된 영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이야기와 생각을 나눈다



노년문화예술교육-생활 공동체 : 거북이마을 공동체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명: 거북이마을 현장읽기
- 기간: 2022년 8월 ~ 9월
- 참여자: 거북이마을 행복커뮤니티센터 구성원
- 장소: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이마을 행복커뮤니티센터

거북이마을 공동체 특징

-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물 관리부터 프로그램 기획까지 센터 업무 및 운영에 참여
- 원도심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공동시설 기획 단계 때부터 자립형 커뮤니티 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됨
- 센터 개소 이후 몇 년 동안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컨설팅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이 서구청과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존속됨 (2016년, 원도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집담회)
- 현재는 센터 운영 자금의 80% 이상 주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 주민들은 마음속의 고향과 같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어하며 현재는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중
- 마을 이웃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및 센터조직의 활성화
-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성장 주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역량과 신뢰를 통한 공동체 구축
- 재개발 이슈와 노후 된 빈집들로 마을 중심과 외곽의 뚜렷한 환경문제가 대비됨
- 자체적으로 공간의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 마을 환경 개선에 주체적인 의지가 있지만 전담 인력과 기획 인력 부족으로 다소 한계가 있음
- 기획 컨설팅 -> 아이디어 도출 -> 아이디어 스케치

프로젝트 목표

-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 중심 프로그램 개발
- 공간에서 마을로 확장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정체성
- 문화 예술 기획자와 단계적인 교류를 통해 자체 기획력 향상

프로젝트 의의

- 자립형 공동체의 고유문화를 관찰하고 가시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내적 동력을 마련하고 더불어 주변 이웃과 다양한 문화적 교류로 확산
- 공동체의 성장 주체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상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노년 문화예술로 살아가는 방법, 타 노년 공동체와 네트워크 만들기, 자아의 회복과 신체건강 증진' 등 활동의 다양한 의미를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워크숍을 기획한다.
- 노년문화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향유하고 지역 안팎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확장하며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실행연구 프로그램 회차별 활동 내용

1회차 / 오리엔테이션 (9월) 거북이 마을 센터 구성원 10여명 참여

- 센터 단체소개 (무인카페, 거북이 부엌, 경로당, 체육관, 어린이 도서관)
- 센터 구성원 소개 및 센터 활동 소개
- 1) 거북이 마을 센터 운영 및 유지방법, 시설관리, 봉사활동 소개
(어르신들에게 김치, 반찬, 간식 등 다양한 음식 나누기)
- 2) 노년문화예술 사업 방향성 공유
- 기획자(박유미, 정미타) 소개, 기획자 활동 소개(지역 활동 중심), 향후 일정 및 내용 공유

2회차 / “나를 위한 간식 만들어 먹기” (9월) 거북이 마을 센터 구성원 10여명 참여

- 센터의 봉사 활동은 다양한 음식을 마련해서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나눠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경로당이 센터 내부에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음(노래교실, 생활체육, 음식 나누기)
- 센터의 주 활동인 봉사활동, 그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 봉사활동 구성원들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나를 위한 간식 만들어 먹기”
- 간식을 먹으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봉사 활동에 대한 리뷰를 듣는다.

3회차 / “감정의 조각 조각” (9월) 거북이 마을 센터 구성원 10여명 참여

- 감정을 주제로 다양한 유도 조형물 만들기를 진행한다.
- 화남, 기쁨, 따뜻함, 분노, 사랑의 감정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한다.
- 각자 만든 감정의 모양을 소개하고 감상한다.
- 감정조각을 제작하면서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눈다.

4회차 / “우리 마을 걷기” (10월) 거북이 마을 센터 구성원 10여명 참여

- 마을 탐색, 탐방 (함께 걸으며 마을 말하기)
- 본 활동은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 산책을 통해 마을의 문제 공유, 센터 구성원의 마을 가이드,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의 외곽부터 골목을 돌아다닌다.
- 지역의 특별함과 문제점을 골고루 공유할 수 있다.
- 마을 외곽에 쌓이는 쓰레기, 벽화 작업의 미완성으로 어수선한 골목 분위기 연출
- 해결 방안, 아이디어 등을 현장에서 바로 고민 한다.

5회차 / “마을 드로잉” (10월) 거북이 마을 센터 구성원 10여명 참여

- 4회차를 기반으로 진행된 아이디어 스케치 및 마을 공용 주차장 입구 꾸미기 : 해바라기 그리기, 바람개비 달기 등
-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가 : 주차 금지 슬로건 만들기, 빌라의 벽을 꾸며 친근한 메시지 전달한다.
- 마을의 대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문제가 있는 공간의 사진이나 설계도 위에 직접 드로잉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2회차 나를 위한 간식 만들어 먹기

- 센터의 주 활동인 봉사활동, 그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 나를 위한 간식을 만들어 먹으며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봉사 활동에 대한 리뷰 듣기





3회차 감정의 조각 조각

- 활동 내용: 화남, 기쁨, 따뜻함, 분노, 사랑의 감정을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기
- 각자 만든 감정의 모양을 소개하고 감상하기
- 감정조각을 제작하며 자신의 속 얘기, 앞으로의 계획과 같은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눔



4회차 우리 마을 걷기

- 마을 탐색, 탐방 (함께 걸으며 마을 말하기)
- 본 활동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기획한 것이 특징
- 지역의 특별함과 문제점을 골고루 공유함





우리 마을 걷기 주요 문제

- 완성하지 못한 골목 곳곳의 어수선했음
- 주차장 화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 조형물 만들기



5회차 마을 드로잉

- 4회차를 기반으로 진행된 아이디어 스케치
- 마을의 공용 주차장 입구 꾸미기 : 해바라기 그리기, 바람개비 달기 등
-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가
 - : 주차 금지 슬로건 만들기, 빌라의 벽을 꾸며 친근한 메시지 전달
- 마을의 대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 : 문제가 있는 공간의 사진이나 설계도 위에 직접 드로잉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아이디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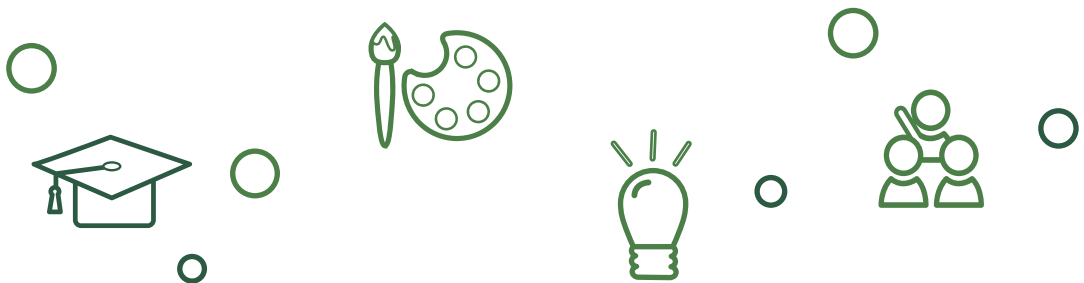


추진 성과 및 실행연구 결과

- 문화, 교육 인프라가 거의 없는 섬에서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노년의 예술, 창작 활동이 지속되고 공동체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노화로 인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년의 신체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다 창작이라는 생산 활동을 통해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초래
- 참여자에서 기획자의 역할로 변모하며 스스로 잠재된 개인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소속감과 성취감과 고양
- 갈등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예술을 매개로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분위기 형성
- 도시 공동체의 현실적이며 자생적인 자체 활동에서 예술이 개입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타진
- 마을 구성원들이 이웃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공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의 현장을 발견
- 구성원들의 희생과 내부적 자원이 소모되는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립형 공동체의 고유문화와 생활양식에서 사회적 활동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기획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내적 동력 마련

노년 문화예술교육 실행에 관한 시사점 및 제언

- 공동체의 자생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세분화시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설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외부 인프라와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노년여성의 삶이 예술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돌봄노동 형식으로 확장되지 않는 세심한 기획이 필요함
- 노년 개개인과 특질과 공동체 안에서의 나타나는 사회적 정체성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사업의 다양한 구성과 기획이 필요함
- 실행연구는 현장성과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양질의 결과가 나오므로 프로그램·회차 등의 결과물 중심의 사업 구조가 아닌 참여자의 자율성과 현장의 가변적 흐름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의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음
- 노년문화를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양식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유의 생활과 문화에 스며든 유무형의 예술 자원을 다양한 매개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시화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관심·취향 공동체

우리통(통) 실버극단
가좌노인문화센터 공동체



대상

기존 커뮤니티: 베이비 붐 세대 시민배우로 구성된 커뮤니티 씨어터 우라통

신규 커뮤니티: 가좌노인문화센터

기획배경

2020년 인천형 노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과제분석 연구가 수행되었고, 당시 본 기획자는 '인천시 연고를 둔 대학 학력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학습자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특성분석 및 학습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기존의 장르중심, 기량중심, 취미활동 위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새로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2020년 조사연구를 토대로 실행연구가 수행되었다. 기획자는 2020년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인문학과 공연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낭독 버스킹> 공연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실내외 인원제한 등으로 인해 공연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경험은 기획자나 참여자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 두 번째 노년문화예술교육 실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약화된 상황이었다. 2020년 학습과제분석 연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참여자들의 학습요구에 따라 기획자는 인문학과 연극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재기획하게 되었다. 기획자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고전 텍스트를 매개로 참여자들의 '자기 이야기'를 1인극 공연방식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1인극 공연은 참여자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관심·취향 공동체 활동에 활용된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윌리 로먼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번쩍이는 차와 새집, 새 가구가 있었고, 세일즈맨으로서 차곡차곡 쌓아 가는 실적과 전도유망한 아들이 있었다. 세상은 노력하는 만큼 돌려주었고 현재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불황은 서서히 윌리의 입지를 잠식해 들어오고, 아들들은 그를 실망시킨다. 윌리는 두 아들 비프와 해피가 그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자 과거로 도피한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맴돌던 윌리의 기억은 어느새 가족과 함께 마차로 유랑하면서 정착지를 찾던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 역사의 한 단면을 그려 보인다. 현실이 가혹해질수록 윌리의 도피 역시 심해지고, 결국 그는 30년 이상 헌신한 회사에서 무자비하게 해고당한 뒤 파국을 향해 곧박질친다.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강유나 옮김, 민음사

기획의도

노년을 사회적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창조하는 노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매개로 노년 시민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성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노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공연방식

버batim(Verbatim) 회상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고전 텍스트를 매개로 한 ‘자기 이야기’ 공연.

·배경:김경미·류승아·최인철(2011), 권오경·허준수(2022), 김나연·김성희·정은하,(2007), 한상윤·남석인(2019) 은 노년기의 ‘삶의 의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커지며, 노년기의 행복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¹⁾ 특히 김경미·류승아·최인철(2011)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의미’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으며, 미래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설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기획자는 노년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고전 텍스트 〈세일즈맨의 죽음〉을 매개로 버batim(Verbatim) 회상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버batim 회상 공연은 다큐멘터리 연극의 한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기억과 회상을 인터뷰, 기록한 자료를 토대한 공연의 형태를 말한다.

김경미·류승아·최인철,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11 ; 권오경·허준수, 「주간보호센터 노인의 집단회상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022 ; 김나연·김성희·정은하,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7 ; 한상윤·남석인, 「노인의 계층 인식과 삶의 의미 영향 요인 분석: Alderfer의 ERG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2019.

노년문화예술교육 - 관심·취향 공동체 : 우라通 실버극단

버batim(Verbatim) 회상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그리고 ‘나의 이야기’>

일시 : 2022. 7 ~ 2022. 11. 대상 : 기존 커뮤니티

회차	제목	목적 및 내용	활동
1	몸열기 마음열기	프로그램 소개 및 강사 소개 친밀감 형성을 위한 즐거운 신체활동	인터뷰 게임 나는 피카소 괴테의 <5월의 노래>감상
2	내 기억 속의 책	본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유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소개 인상적인 장면 나누기	작가와 책 소개 장면과 나를 연결하기
3	텍스트에 말 걸기	<세일즈맨의 죽음>텍스트에 대한 흥미유발, 벽에 붙어있는 단서 (책속의 단어)를 통해 책의 내용과 중심인물에 대한 추측	단서를 통한 추측 어떤 이야기일까?
4	영화 감상 및 텍스트 읽기	이야기 이해 및 핵심장면 파악 영상을 관람하고, 핵심장면을 파악 감상에 대한 소감 나누기	영상 관람 및 장면파악 감상을 신체언어로 표현
5	나와 타자와 세계 돌아보기	텍스트의 인물, 사건, 배경, 물건에 대한 질문 만들기를 통한 생각 확장, 내가 기억하는 나의 삶과 사회적·지역적 사건	질문 만들기 나의 연보 만들기
6	나의 역사	나의 기억, 스토리텔링 습식 수채화를 통해 나의 기억을 정리하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유도	그때 거기, 기억 불러오기 습식 수채화
7	나의 현재	자신의 기억과 회상을 토대로 한 ‘자기 이야기’ 대본 구성	대본 만들기 토론
8	대본 창작	각자 자신이 구성한 대본으로 공연연습	공연 연습 피드백
9	연습	공연연습	공연 연습 피드백
10	발표와 나누기	발표 후, 소감 나누기	공연 발표 관객과의 만남

우라通 공동체 발표 공연 <세일즈맨의 죽음, 그리고 ‘나의 이야기’>

일정: 2022. 12. 3.(토), 13시

장소: 거북이마을행복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

- ① 구상나무님의 <100년 전 이야기에서 나를 보다>
- ② 도시농부님의 <나의 친구 윌리에게...>
- ③ 춘향님의 <그러는 원장님은 뭐하셨어요?>
- ④ 도로시님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 ⑤ 들사람님의 <공수래공수거>

참여자 활동 소감

〈세일즈맨의 죽음, 그리고 ‘나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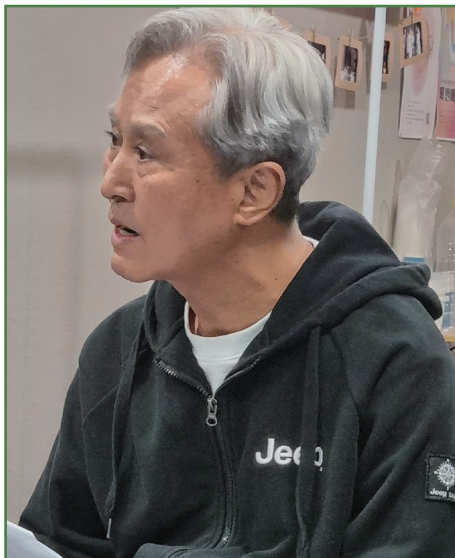


들사람님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모마음은 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윌리도 자기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많은 수모와 갈등을 이겨내면서 살았듯이 우리네 부모님들도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살아왔지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윌리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공수래공수거

저는 2년 전, 폐암 수술을 한 암환자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이는데 기분이 묘하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시려 왔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생각과 갈등 속에 책도 찾아보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 “웰 다잉”이라는 죽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받는 동안 수업을 들을 땐 알겠는데 돌아서면 신기하게도 모두 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딱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는 이쁜 영정사진 남기는 것 이었구요, 또 하나는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연극은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말을 실천하고자 만든 저의 연극입니다...





춘향님

〈세일즈맨의 죽음〉 주인공 윌리는 퇴직 후 자살로 삶을 마감했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조기퇴직 한 후에 직장생활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끊어내고 나를 찾는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직장 스트레스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었던 일들 중 하나인 연극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예술활동입니다.

그러는 원장님은 뭐하셨어요?

〈세일즈맨의 죽음〉과 나의 이야기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나이가 60대가 되었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원분들과 〈세일즈맨의 죽음〉 작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인공 윌리의 강제 해고와 나의 조기퇴직이라는 다른 듯 비슷한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조기퇴직을 자발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간을 회상하며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윌리가 평생을 열정적으로 일해 온 회사에서 젊은 사장에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당하며 강제해고를 당하는 장면은 저의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인관계도 잘 하고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60대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퇴물취급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던 당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치받쳐 올라오는 젊은 교사와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상부에 올리는 젊은 학부모를 용납할 수 없어 조기퇴직하면서 자기 상실감과 비애를 느꼈습니다. 이 연극은 그때의 상처를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도시농부님

〈세일즈맨의 죽음〉에 등장하는 주인공 윌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이슈는 가지고 살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도작업이 필요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녀로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거를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혼자 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옵니다.

나의 친구 윌리에게...

친구야! 우리가 함께 했던 기억들이 꿈만 같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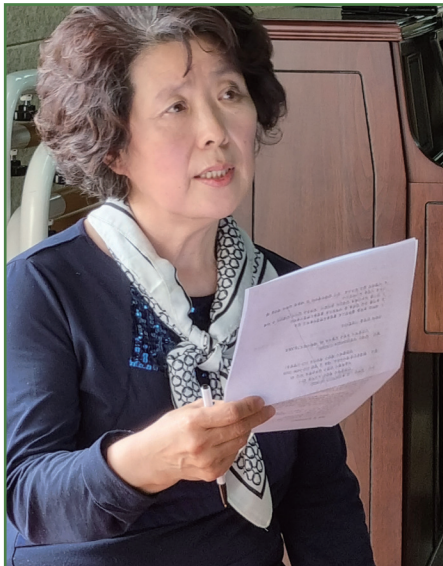
추억해보니 그래도 경이롭고 살만한 세상 아니었던가! 산다는 게 별거야?

일등이 아니면 어때서? 우리는 연극처럼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일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 있지 않던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말인가? 왜 왜 왜? 남겨질 가족을 생각했다면... 너무 개탄스럽기만 하다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연극은 어쩌면 저의 방어기제로 포장한 애도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로시님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무게.

세일즈맨 월리와 아들 비프의 비극적인 스토리가 공감이가면서 한편으론 안타깝고 언짢았습니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어서 월리의 심정에 공감도가고 비프의 상처도 가슴 아팠어요. 냉혈한 자본주의의 희생자 월리의 현실에 분노하지만 소시민인 우리에게겐 아무래도 비극적인 가족사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평범한 아버지인 월리와 내 자신의 모습을 이입하면서 숨어있던 내 상처를 끄집어내어 마주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비프와 내 아이와, 상처받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사과를 보냅니다. 월리 대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가여운 아버지 월리에게도 경의와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별것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극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무게에 짐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꼬박꼬박 숙제하듯 꾸역꾸역 밥을 먹듯 한발 한발 걸어 가다보면 언젠가 그럴듯한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십이 넘어 연극에 입문한 아마추어지만 늘 진지하고 버겁고 설레는 작업이라고 여깁니다. 또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랄게 없는 듯 합니다. 제가 준비한 연극은 아버지 월리와 아들 비프와의 사연과도 닮아있는 나와 아들의 그때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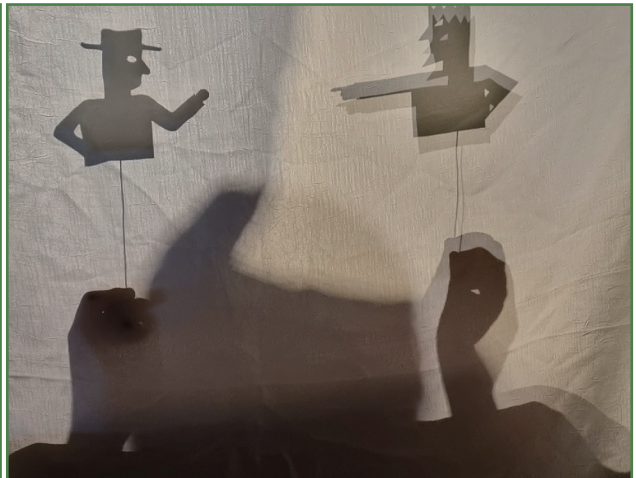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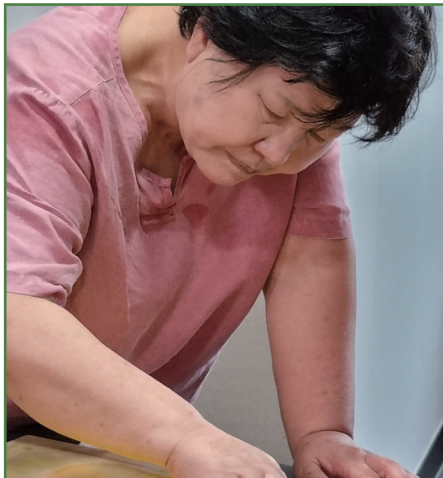


구상나무님

『세일즈맨의 죽음』을 읽고 연극하는 동안은 윌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그렇게 가면 남은 가족의 상처와 죄책감은 어떻게 하라고’. 자식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위로하는 말과 남은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이 나의 아버지의 죽음에서 받은 상처가 다시 돌아나 나를 원망과 죄책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했던 나의 아버지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딸이라고 돌까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지만 엄마의 재촉으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감사해요!”

100년 전 이야기에서 나를 보다

100년 전 이야기를 읽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돈 벌어오는 기계 남편은 이제 65세이니 은퇴할 날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학원에 다니는 큰 아들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고, 작은아들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윌리, 아니 실제 저의 남편은 잠자기도 벌떡 일어나 “당신이 애들에게 영똥한 바람을 넣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를 원망합니다. 남편은 곧 실직하면 어떤 일을 해서 뭐 먹고 사냐고 태산이 무너질 한숨을 쉬면서 실직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연극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닮아있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재구성한 연극입니다.



활동 사진



노년문화예술교육 - 관심·취향 공동체 : 가좌노인문화센터

버batim(Verbatim) 회상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그리고 ‘나의 이야기’>

일시 : 2022. 7. 28. ~ 2022. 8. 11.

회차	제목	목적 및 내용	활동
1	몸열기 마음열기	연구에 대한 소개와 진행과정 설명	
2	내 기억 속의 책	동기유발, 기억에 남는 책 소개	작가와 책 소개 장면과 나를 연결하기
3	영화 감상 및 이야기	영상관람 및 핵심장면 파악 & 감상에 대한 소감 나누기	영상 관람 및 장면파악
4	나와 텍스트	텍스트의 인물, 사건, 배경, 물건에 대한 질문 만들기를 통한 생각 확장	질문 만들기 나의 연보 만들기
5	회상하기	습식 수채화를 통한 기억의 습작	습식 수채화

관심·취향공동체 - 실행연구 참여 소감



참여자1 (94세)

한국전쟁에서 하늘이 도와 살아남은 우리 세대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거지도 살지 않을 움막 같은 집에 예닐곱 식구, 많으면 열댓 식구가 살았어요. 자식만큼은 가난을 벗어나 부자로 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어느 시대보다 간절했어요. 나 역시 아들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었고, 다행히 아들이 잘 따라 주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의 율리가 나왔다면, 아들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아마 나도 율리처럼 자식들을 몰아붙였을 거예요.

내가 젊어서 동경하던 나라, 미국에서 세일즈맨의 죽음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희곡으로 출판되어 연극무대와 영화로 만들어져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네요. 마릴린 먼로와 페터 페이지, 비비안리, 크락 케이블 등의 수 많은 스타들이 보여주는 미국의 풍요함과 화려함 이면에 한 가족의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이 비극이 오늘날 한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참여자2 (79세)



참여자3 (81세)

〈세일즈맨의 죽음〉 연극 속에 윌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도 성과 없이 집으로 지쳐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윌리씨, 고생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은 멋진 아버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자식들이 부모보다 잘살고 남보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해요. 윌리는 죽어서도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였어요. 그의 죽음에 원망의 말은 하지 마세요!



참여자4 (79세)



참여자5 (76세)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윌리의 아내 린다가 살림을 잘한 것 같아요.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집값 할부, 냉장고 할부 등 살림 장만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나의 젊은 시절 아이 낳고 살림 장만하는 재미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남편 윌리씨가 허망하게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도 잘 들리지 않는 나이에도 공감이가 되는 이야기를 알게 되어 감사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했는데 남편 윌리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려고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 했을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죽음의 대가로 얻은 돈이 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비프야, 아비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참여자6 (72세)



참여자7 (70세)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듯 부모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라 서툴고 실수가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실수를 이해할 때 찜이면 자식들도 부모가 되어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 연극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활동 내용 및 사진

『세일즈맨의 죽음』을 활용한 회상 스토리텔링 7/28 (1차시)

활동목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시청하고, 연극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프로그램 소개 및 계획 설명
'오늘의 노래'로 마음 풀기
원작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시대적 배경 살펴보기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유튜브 영상시청
영상 시청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공유하기
오늘 만남에 대한 개인의 소감 나누기
격려와 마무리 인사



『세일즈맨의 죽음』을 활용한 회상 스토리텔링 8/1 (2차시)

활동목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대본을 읽고 상황 속 중심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행위에서 궁금한 점들을 찾아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자신과 '등장인물'을 연결시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오늘의 노래'로 마음 풀기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등장인물 탐색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질문 만들기
오늘 만남에 대한 개인의 소감 나누기
격려와 마무리 인사



『세일즈맨의 죽음』을 활용한 회상 스토리텔링 8/4 (3차시)

활동목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주요 장면 대본을 배역을 맡아 읽을 수 있다.
 자신이 기억하는 자화상, 배우 자, 부모님을 습식수채화로 그린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습식수채화에 나타난 인물을 탐색할 수 있다.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 '오늘의 노래'로 마음 풀기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주요 장면 대본을 배역을 맡아 읽기
 (예: 아버지 윌리와 아내 린다의 대화장면, 죽은 형과 대화하는 윌리장면 등)
 자신이 회상하는 나, 배우자, 부모님의 얼굴을 습식수채화로 표현하고, 이야기 나누기
 오늘 만남에 대한 개인의 소감 나누기
 격려와 마무리 인사



『세일즈맨의 죽음』을 활용한 회상 스토리텔링 8/8 (4차시)

활동목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주요 장면 대본을 배역을 맡아 읽을 수 있다.
 “내가 만약~?” 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 '오늘의 노래'로 마음 풀기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주요 장면 대본을 배역을 맡아 읽기
 (예: 과거 윌리와 가족 모두 행복했던 장면, 윌리의 장례식 장면 등)
 내가 만약~? (예: “내가 만약 강제퇴직 당한 주인공 윌리 라면?”)
 오늘 만남에 대한 개인의 소감 나누기
 격려와 마무리 인사



『세일즈맨의 죽음』을 활용한 회상 스토리텔링 8/11 (5차시)

활동목표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주요장면 대본을 배역을 맡아 읽을 수 있다.
등장인물인 아버지 윌리와 아들 비프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식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활동내용 인사나누기,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 '오늘의 노래'로 마음 풀기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주요 장면 대본을 배역을 맡아 읽기
(예: 아들 비프와 마지막 설전 장면, 윌리의 장례식 장면)
'나'와 등장인물과의 관계
오늘 만남에 대한 개인의 소감 나누기
격려와 마무리 인사



관심·취향공동체 실행연구 분석

1. 세일즈맨의 죽음과 연결된 나의 삶

- 주인공 윌리와 닮은 남편과 그의 두 아들과 닮은 나의 두 아들, 그리고 린다와 닮은 '나'
(성공의 기준, 자식에 대한 기대, 가족을 위한 희생)
- 주인공 윌리의 죽음을 통해 실제 죽음을 준비하는 '나'
(윌리는 자살을 선택, '나'는 웰다잉을 선택)
- 주인공 윌리의 죽음을 통해 떠오른 친정아버지의 죽음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애도작업 필요)
- 주인공 윌리가 젊은 사장에 의해 해고되는 장면에서 과거 '나'의 퇴직의 기억 소환
(과거의 상처 찌꺼기를 제거)
- 주인공 윌리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있는 '나'
(지나친 기대로 인해 아들을 통제했던 자기고백과 성찰)

→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 & 등장인물을 통해 자기를 자각하는 경험

2. 공연 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 우라통 공동체만 해당

-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어려웠음
-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저지른 아픈 과오를 들춰내는 것이 힘들었음
-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그 동안 덮어두었던 아픈 감정들이 다시 올라와 감정조절이 어려웠음
- 원래 자기표현이 인색하고 이성적인 나였기에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
그러나 공연 준비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들이 불편하고 어려웠음
- 내 이야기가 연극의 소재로 된다는 것과 관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낌
→ 자기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의 어려움 & 자기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공연이 연극예술로서의 가치유무

3. 이번 공연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

- 그 동안 관심 없이 들었던 나의 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게 됨
-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자기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나와 자식,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됨
- 뒤늦게나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의 찌꺼기를 발산시키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음
- 모두 아픔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고 위로받는 감사의 시간이 됨
- 하찮은 나의 이야기가 예술로 승화되는 경이로운 경험
→ 자기 이해와 성찰의 경험 & 공감과 위로의 시간, 치유의 공간 &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경험

관심·취향공동체 실행연구 분석 결과

1. 자기이해와 성찰을 경험
2. 공동의 기억을 통한 공감과 위로를 경험
3. 감정표출을 통한 자기치유의 시간을 경험
4. 자기 정체성과 존재감 표현을 위한 심미적 경험
5. 인정욕구 → 상호인정

실행연구 시사점

과정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시민배우들에 의한 공연: 공연제작과 발표수행)

자기 삶의 재구성을 통한 자기이해, 자기존재 자체로 드러낼 수 있는 경험 ('자기 이야기' 회상 공연을 통한 치유와 성찰의 경험)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을 매개로 개인적, 사회적 이슈를 공유, 공감하는 소통의 장)

추진회의·결과공유회



추진회의 운영

- 정기회의 매월 1회, (5월~11월, 총 5회)
- 참여자 : 총괄 기획자 2인, 협력기관 담당자 2인, 재단 2인
- 매월 노년문화예술교육 실행연구 공동체별 추진 현황 점검 및 추진 일정 공유
- 공동체별 특이사항 공유 및 실행연구 운영 관련 재단 협력 사항 논의 등
- 2022~2023년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관련 협력 및 연계방안 논의
- 2023년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사업 방향성 및 사업운영 방식 등 논의

1회차 2022.06.16.



2회차 2022.07.25



3회차 2022.08.24.



4회차 2022.09.22



5회차 2022.11.03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공유회

개요

주 제 :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공유회 “함께, 돌아보고, 마주하는 삶을 위하여”

일 시 : 2022. 11. 26. (토) 16:00~18:00

장 소 : 거북이마을커뮤니티센터 1층 무인카페(인천시 서구 길주로 142번길 52)

참석인원 : 총 10인(실행연구 참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기획자 | 김은영, 박유미, 송금라, 정미타

외부 전문가 | 고영직 (문학평론가, 前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추진단장)

윤현옥 (aec 비빔떡 대표, 2020 노년문화예술교육 조사·연구 총괄기획자)

협력기관 담당자 | 강가애(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유요한(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김영경, 장유진

결과공유회 세부 프로그램

16:00 ~ 16:05	개회	[김영경] 개회사 및 진행 / [장유진] 노년문화예술교육 사업 소개
16:05 ~ 16:35	발표	[김은영] : “예술교육”을 위한 노년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삶”을 위한 노년문화예술교육 [박유미] : 공동체의 특수성과 개인의 삶을 기반으로 한 노년문화예술교육
16:35 ~ 17:00	주제 토론	[윤현옥] : 노년문화예술교육 실행연구에 대한 질문 김은영 기획자의 관심·취향공동체, 박유미 기획자의 생활공동체 실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영직] : 노년 문화예술교육, ‘동사’에서 ‘형용사로’ 전환하자
17:00 ~ 17:20	토론	[강가애] : 노년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방향 [유요한] : 노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송금라] : 삶의 문제점을 느끼고 표현하는 생활 [정미타] : 자생적 성장의 원동력
17:20 ~ 17:50	종합 토론	참여자 전체
17:50 ~ 17:55	폐회	행사 종료

사례발표

세일즈맨의 죽음, 그리고 ‘나의 이야기’ 발표 : 김은영

왜 <세일즈맨의 죽음>인가?

노년담론에 대한 사회적 이슈 제공과 자기 성찰

왜 ‘자기 이야기하기’ 공연인가?

실존적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세계-내-존재로서 소통 창구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를 의식화

FGI 조사영역과 분석결과

세일즈맨의 죽음과 연결된 나의 삶

공연 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공연 경험의 의미

주요 성과·시사점

과정중심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한 노년 참여자의 자발적·주체적 공연제작 활동 및 발표 수행

희곡작품을 매개로 ‘자기 이야기’ 회상 및 퍼포먼스 공연을 통한 치유와 성찰의 경험(자기 삶의 재구성을 통한 자기이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개인적,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 마련

문제의식

시민배우 또는 시민예술가

실행연구 진행에 있어서 기획자의 어려움과 향후 프로젝트 방향성

“한 세상 뜻 있게 살고 싶다” 발표 : 박유미

공동체의 특수성과 개인의 삶을 기반으로 한 노년문화예술교육

노년-여성-욕망: “한 세상 뜻 있게 살고 싶다”

참여자 가 기획 및 창작 활동을 통해 노년 개인으로서 배재되거나 타자화 되어왔던 ‘나’의 욕망 들여다보기

나와 타인의 욕망이 억압받지 않고 존중되는 경험

노년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사회화 현상

돌봄, 노동 이외에 노년 여성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자원 계발 및 확산 (예술적 잠재력, 수공예 능력, 소통, 기획력 등)

노년 여성에게 창작-창의적 활동의 의미

창작은 결국 작품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 타인이 아닌 내가 주체적으로 창작을 통해 나의 삶을 서사화하기

개인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출발해서 사회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예술

논의 제안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사업의 조건과 형식

노년문화예술교육의 특수성과 지난 사업의 성과가 환류되는 새로운 사업 형식과 성과 지표

주요 토론내용

실행연구에 대한 질문 주제를론 : 윤현옥(aec 비비트 대표)

2022년 생활공동체, 관심취향공동체 실행연구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실행연구에 대한 의견

2021~2022년은 실행연구의 형태로써 기획자들의 역량으로 해당 학습자들의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개발하였고 잘 운영했다고 생각함. 참여자가 제안하고 기획, 실행해보는 과정은 노년의 과제라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과제에 해당함. 무엇보다 자기 주도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노년에서는 어떻게 개인을 드러내면서 주체화 할 것인가를 좀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사회의 도시 공동체에 대한 특징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노년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논점 및 제언

기존 공동체 보다는 새로운 공동체와 다양한 시각들이 존중 받는 형태의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관점은 참여자 스스로 '리더로서 관점'에서 접근하여야함. 노년이 살아 온 사회적 상황과환경, 다른 세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중점으로 고민 필요함.

노년 문화예술교육, '동사'에서 '형용사'로 전환하자 주제를론 : 고영직(문학평론가)

사례발표 활동 및 내용을 기반으로 노년 문화예술교육의 전환점 제시에 대한 의견, 노년문화예술교육 변화의 필요성,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

문제의식

노년 문화예술교육이 왜 '실행연구' 형식이어야만 했는지 의문이었는데, 올해 인천에서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행한 내용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음.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인천의 지역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점들을 풀어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노년문화예술교육은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아니며, 노년문제가 아닌 노인존재로 접근해야 함.

사례발표에 대한 의견

(아차도 사례) 십여년 동안 이어진 활동의 시행착오와 스스로 주민기획자가 되는 주체화 과정이 인상적이었음. 광역/기초문화재단에서 쉽게 할 수 없는 활동이기에 더 의미 있음.

(가좌노인, 우라동 사례)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연극을 장치로 활용하여 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음. 개인의 서사를 드러내는 것은 노년은 기본적으로 '현재지상주의적' 태도에 의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함.

노년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논점 및 제언

노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은 기존의 지원 트랙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음.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꾸자는 의미는 노년 프로그램이 활동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탈피하고 노년 스스로 참여 과정에서 질문이 필요함.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면 좋을 것임.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저자 유해숙, 유범상과의 만남을 추천함.

공동기획자로서 노년문화예술교육의 주요 키워드와 활동리뷰를 중심으로 토론 토론 : 공동기획자, 협력기관 담당자 ——

정미타 : 10년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현장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맞이하는 것이 의미있는 작업이었으며, 챌린지처럼 자율도도 높고 많은 활동을 같이 고민하면서 실험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생각함.

송금라 : 노년 참여자들의 보수적·가부장적인 생각, 관습적 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를 통해 윤현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리터러시’ 개념의 이해와 필요성을 느낀 시간이었음. 노인 개인의 존재로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떠한 이야기들과 활동들이 진행이 될지 기대되고 한편으로는 위로받는 시간이었음.

유요한 :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운영하는 ‘선배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단기 교육프로그램이나, 캠프를 인천 노년문화 예술교육의 생활공동체, 관심취향공동체에 연계하는 지점에 대해 고민하면서 세대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음. 또, 연말이나 가정의달, 사회서비스원에 후원, 기부하는 형태로 문화예술 공연, 뮤지컬 관람 기회가 있어서 인천문화재단 노년 공동체와 연결해도 좋을 것 같음.

강가애 : 올해 추진단 참여하면서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노년 공동체, 노년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목적, 대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행정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노년문화예술교육’에서 만큼은 점점 더 자유롭게 열어두어야 하고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참여자 리뷰

총괄·공동기획자
협력기관 담당자



생활공동체 총괄기획자 박유미

“한 세상 뜻있게 살고 싶다.” 아차도 주민 한 분께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여쭙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긴 숨을 내뿜으시며 하신 말씀이다. 나는 고개만 끄덕끄덕하며 이어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다.

또 다른 한 분께 진짜로 하시고 싶은 게 뭐냐고 여쭙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매는 거라고 하셨다. 발매는 게 진짜고 발을 매야 잡념이 없어진다고. 예상치 못한 답변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으니 일하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시라 간청했다. 한참을 고심하시더니 노래 부르는 게 좋다고 하셨다. 애창곡 심연옥의 〈한강〉을 부르기로 하고 활력 있게 대화를 마쳤다. 어렵게 꼬집어낸 두 번째 욕망이 금세 사그라들까 얼른 〈선창 노래방〉을 준비했다. 웬만해서는 저녁 나들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소식을 듣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름 밤바다를 등지고 평소에는 마시지도 않는 맥주도 한 모금 마시면서 신명 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쳤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지긋지긋한 모기를 모조리 쫓아내서 더할 나위 없었다. 어떤 노래는 고향처럼 들리고 어떤 노래는 울음처럼 들렸다. 노래 부르는 게 두 번째로 좋다고 하신 분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인 발매기로 녹초가 되어 오시지 못했다.

쫓기듯 바쁜 한해를 보내면서도 “한 세상 뜻있게 살고 싶다.”는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다. 활동을 마무리할 때쯤 그 말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노년여성도 뜨겁고 생산적인 욕망을 생성하는 주체라는 당연한 사실을 그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곳이 아차도든 석남동이든 지금 살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그분들이 품은 그 뜻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둘씩 이어졌으면 좋겠다.

프로필

총괄기획자 박유미 Park Yumi

2021~현재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조교수

개인전

2021 〈어부지리漁婦地理: 바다는 가르지 않는다〉, 인천문화재단, 온라인 전시

2019 〈문밖살롱〉, 우리미술관, 인천

단체전 · 프로젝트

2022 〈예인인력소 폐업신고〉, 인천, 온라인 전시

2021 점점점 유니버스 〈예인물류센터: 태깅워크숍〉, 예인인력소, 인천

2020 점점점 프로젝트 〈마켓팅스 프로젝트〉, 예인인력소, 인천

2020 〈뜻밖의 연수: 우리 안의 송도 유원지〉, 연수갤러리, 인천

2020 〈북아현동의 기호들〉, 합정지구, 서울

공공기관 연계 활동

2020~2022 인천문화재단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2021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선정예술인 멘토

2021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에 심의위원

2021 인천문화재단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실행연구 기획자

2018.1.~2021.3. 공간설업 대표

생활공동체 공동기획자 정미타

아차도 주민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바닷길, 공공 근로, 농사 등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노동의 피로감을 풀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한 문화예술, 나와 공동체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민들은 〈선창 노래방〉, 〈차와 우리〉, 〈시와 나〉, 〈아차도 피트니스〉와 같이 평소 하고 싶은 활동에 아이디어를 넣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참여자 중 다섯 명이 기획에 참여했고 그 중 이승희 씨의 〈차와 우리〉, 김혜경 씨의 〈시와 나〉는 노동의 비중이 많은 일상에서 벗어나 차를 마시며 톡톡이 써온 시를 낭독하는 시간이었다. 또 주민들은 ‘다 함께 차 한잔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거북이마을 행복커뮤니티센터 공동체는 기획 단계부터 자립형 운영을 목표로 만들어진 센터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에 거북이센터도 만들어졌다. 주민들은 그동안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로 노년층으로 구성된 센터는 복잡한 형식의 예산 증빙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래서인지 현재는 최소한의 건물 유지비 말고는 자체적 모금과 기부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센터의 대표적인 활동 중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봉사는 늘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봉사단 여성분들이 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점도 스스로 찾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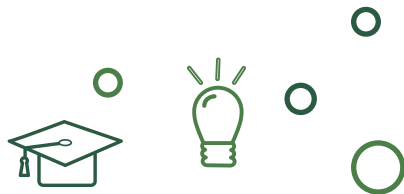
공동기획자 정미타 Jung Mita

개인전

2019 문제상점_우리미술관_인천

프로젝트, 기획전

2022 인천문화재단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공동기획 및 운영
2022~21 창작 실험 프로젝트 챌린지 그룹_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_서울
2022 〈예인인력소 폐업신고〉, 인천, 온라인 전시
2021~19 예술로 기획사업_사진공간배다리_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창작 실험 프로젝트 챌린지 그룹 결과보고전_아트숨비갤러리_서울
2021 점점점 유니버스 〈예인물류센터: 태강워크숍〉, 예인인력소, 인천
2020 기획전 〈응집하는 눈〉, 임시공간, 인천
2020 점점점 프로젝트 〈마켓팅스 프로젝트〉, 예인인력소, 인천
2020 프로젝트 〈잠상아카이브보고회〉, 예인인력소, 인천
2019 기획전 〈예일반도〉, 사진공간배다리, 인천
2019 비나이다 프로젝트: 움직이는 별 씬, 별내 용암 천 외, 경기도
2019 기획전 〈날날의 언어〉, 옹현동 181-3, 인천
2019 이동캠프 프로젝트 〈이부다 인천〉, 인천



관심취향공동체 총괄기획자 김은영

2007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노인연극 강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인연극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우연한 계기로 2014년에 시니어연극단을 창단하였다. 그 우연한 계기는 2013년 지자체에서 시민연극단 창단체획이 진행되었을 때 연출가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였다. 몇 달간은 시민연극단 활동이 진행되었으나 갑작스런 지자체의 지원금 동결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연극단 운영이 중단되었다. 당시 참여했었던 시민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시니어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정서적, 정서적 치유를 위해,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상한 취미를 갖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시민연극단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움과 허무함을 느껴야 했다. 그렇게 그들과 헤어지고 몇 달 뒤, 그들 중 일부 참여자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시니어 극단을 함께 만들어 계속 연극을 하고 싶다면 극단 창단을 제안해 왔다. 이것이 시니어 시민연극단을 창단하게 된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시니어 시민배우들과 함께 해오고 있다. 실로하자면 처음부터 시니어 연극에 매력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시니어 연극을 시작할 무렵, 나는 시민연극을 단순한 여가나 문화 활동쯤으로 치부했고, 노년기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제공쯤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 섰을 때, 나는 연극인으로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학적인 동요를 경험했다. 그들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대사를 기억 못 하는 것은 일쑤였고, 연출가의 지시를 벗어나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연극적 환상을 만들어갔다. 그 동안 나는 연극이야말로 고도의 인문과학이라고 생각했었다. 잘 짜여진 대본, 연출력, 그리고 훈련된 배우들의 연기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텍스트를 해석해내고 그것을 얼마나 무대에 잘 구현해 낼 수 있는가를 연극의 본질로 삼았다. 나는 무지했고 일종의 지적 오만에 빠져있었다. 연출가는 대본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편집하는 능동적인 창조자라고 생각했고, 배우들은 철저히 수동적 존재로서 연출가의 의도를 무대 위에서 재현하는 도구적 존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니어 시민배우들은 대본은 물론 연출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몸짓과 언어로 자신을 표현했다. 그들은 현존하는 배우 그 자체로 무대 위에 서있었다. 나는 시니어 연극에 점점 매료되었고, 2007년 이래로 시니어들과의 연극적 만남을 이어오면서 나 또한 맞이하게 될 나의 노후에 대해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 <세일즈맨의 죽음,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참여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준비했다. 나는 복도 많다. 시니어 연극답시고 인생 선배님들(참여자들)에게 공짜로 인생공부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항상 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원한다.

프로필

총괄기획자 김은영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학 석사·박사

연구실적

『연극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2013.

『위기청소년을 위한 역할극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2018.

『연극치료에 나타난 브레히트의 '거리두기' 연구』, 인문사회21, 11권 4호, 2020.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활용한 노인연극 질적 사례연구』, 문화예술교육학회, 15권 4호, 2020.

『노년문화예술교육 학습과제분석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0.

주요 경력

2012. 6 ~ 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연극치료 전문강사 / 2013. 5 ~ 현. 마음맞이 치유드라마 연구소 소장

2014. 9 ~ 현. 공연예술연구소 POISE & 커뮤니티 씨어터 우라통(通) 상임연출 및 대표

2016. 9 ~ 현.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 겸임교수 / 2020. 3 ~ 현. 인천문화재단 노년문화예술교육 기획자

2021. 5 ~ 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극치료 전문강사

2021 부천문화재단 차세대전문활동지원 '청년예술가S' 선정예술인 멘토

2021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에 심의위원

2021 인천문화재단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실행연구 기획자 / 2018.1.~2021.3. 공간감상 대표

관심취향공동체 공동기획자 송금라

왜 문학을 현실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공감과 반감의 시간이었다.

참여자들은 세일즈맨의 죽음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실을 살아가면서 얻는 문제점과 해결점을 토론과 사유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재현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을 견뎌냈다. 세일즈맨의 죽음 속의 윌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해 그를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려 했다는 공감의 의견이 오갔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과도했다는 반감과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정도의 기대는 당연하다는 공감 또한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수치심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 모임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는 어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수치심을 드러내면서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는 경험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기도 했다.

[예술은 인간의 피를 바꿈으로써 머리로 따라오게 한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은 도덕적이다. 미학적이거나 장식적이지도 않고, 오락과 기분전환도 아니다 도덕적이다. 예술의 본질적 기능은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나 교훈적인 도덕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목시적인 도덕이다. 머리보다도 피를 바꾸는 도덕이다. 피를 먼저 바꾼다 그리고 나면 머리가 나중에 그 자취를 따라온다.- D.H.로렌스의 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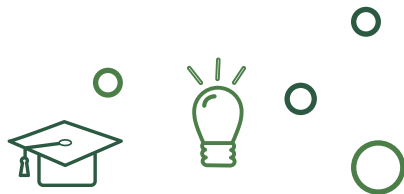
왜, 예술이어야 하는가? 그중에 왜 연극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으로 로렌스의 예술관을 떠올렸다. 참여자들은 참다운 삶을 위해 연극 준비작업을 통해 피를 바꿀 만큼의 상처와 아픔을 꺼내어 들여다봐야 했다. 들여다보는 과정이 도덕적이었다. 들여다보는 과정이 예술이었다. 들여다보는 과정이 치유였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에 어떠한 행태로도 영혼이 치유 받길 원한다. 그래야 견뎌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프로필

공동기획자 송금라

주요경력

- 2008~2022 인천 서구 가좌노인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작업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 수업진행중(2022년 우리에게 문학이 필요하다.)
- 2012~2022 서구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국어기초강사, 성인문해반 강사
- 2021 인천 남동구 선배시민교육프로그램 자서전 강사
- 2019 서구 치매센터 국어 강사
- 2018 부평구 업앤업 프로그램 강사
- 2018 서구 가좌 노인문화센터 찾아가는 교육연구
- 2017 우리한지로 만드는 교육인형극 - '호랑이와 나그네' 인형 만들기 지도
- 2016 가좌노인문화센터 '성교육 인형극' 인형만들기, 토론을 통한 대본 작성 및 연극
- 2014 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손바늘로 애착 인형만들기' 강의
- 2014 서구노인복지관, 서구성광노인복지관 치매 예방 교육 '참살이프로그램, '닥종이 인형으로 전래동화 꾸미기'



협력기관 담당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교육협력팀 강가에 주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인천마을지원센터) 교육협력팀 강가에 주임입니다. 올해 인천문화재단의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일환으로 저희 인천마을지원센터가 협력기관으로써 함께 해나가면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추진단으로써 초기부터 함께 논의하며 진행해 왔던 과정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노년문화예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여자들(참여 공동체)과 사전에 ‘충분한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사전 준비 단계부터 참여자와 **공동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이 결과 중심의 예술교육이 아니라, 참여자와 기획자들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참여자들의 잠재력까지 끌어낼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유요한 과장

안녕하세요.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유요한 과장입니다.

올해 인천문화재단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과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지역맞춤형 연구 및 조사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노년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면서 **결과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 본인들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여자들이 내가 거주하는 동네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노년문화예술교육 통해 ‘함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도 내년에는 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본인보다 지역과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참여자들과 함께 이제는 본인들도 힐링 하며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을 연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노년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함께 노력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센터 소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정하고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입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10년 6월 지정되었으며, 인천 외에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입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이 가진 아름다운 힘을 교육으로 전파하여 일파만파(一波萬波) 퍼져나가는 감수성의 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인천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바탕으로 예술가, 교육자, 시민이 함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구성해나갈 것입니다.

비전

모든 시민의 삶을 키우는 인천문화예술교육(Enhancing 'All')

추진목표

1. 인천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시설/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2.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3.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4.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강화
5. 문화예술교육 기반과 생태계 구축

2022년 센터 운영방향

1.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3.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문화력 제고
3.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2022 센터 주요 사업

인천시민문화대학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연구·역량강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인천문화예술교육 기획지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연구·역량강화 사업

SNS 소통 채널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fac.or.kr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gdhSxd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facp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FACifacIFAC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fdluLsBb7z2dDV_9TAOxg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facarte>



페이스북
www.facebook.com/ifacarte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니바람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bg6301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뉴스레터 !ng [영]
<https://page.stibee.com/archives/180286>

2022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2. 12.

발행인 이종구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재)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032-455-7152~7157

자료정리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유진

디자인 아츠비

본 책은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22년도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 결과 기록을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2022

노년문화예술교육사업

결과자료집

함께,

돌아보고,

마주하는 삶

